반기문 "혼자는 힘들어…설 이후 입당 결정"

자금·조직 운영 한계…'연합 후보'·당외 후보 경선도 고려
바른정당·국민의당 등과 연대 가능성…최종 선택 주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 연휴 이후 입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16일 경남 김해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없이 홀로 (대선행보를) 하려니 빡빡하다"면서 "설 이후 입당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대선 행보를 한층 구체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반 전 총장이 어떤 정당을 선택해 세력화에 나설지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귀국 이후 정치권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던 반 전 총장이 '입당 여부'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기존 정당의 힘을 빌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현실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선거의 기본인 자금과 조직에서 자유롭지 않는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귀국 이후 정치권과 일정 거리를 둔 이유는 우선 귀국 이후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교체'에 맞춰 민의(民意)를 먼저 수렴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정치 신인으로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하며 몸값을 높이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입당 여부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종국적으로는 어느 쪽이든 기존 정당과 함께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대통령이 된 사람 중 당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면서 "당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소속 후보로 뛰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반 전 총장의 한 핵심 측근은 "반 전 총장이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존 정당들과 손잡는 '연합 후보' 방식도 있다"면서 "'당외 후보 경선'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이 손을 잡을 정당으로는 가장 먼저 바른정당이 거론된다. 스스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한 반 전 총장의 노선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반 전 총장 영입에도 적극적이다.

국민의당 역시 '반(反) 문재인'과 '뉴DJP(김대중·김종필)'를 고리로 반 전 총장이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 전 총장이 이날 방문한 호남 지역이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반면,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적은 게 사실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확보한 정통 보수층이 반 전 총장의 지지 기반과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아예 외면할 수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이 설 연휴 이전까지 나홀로 대선 행보를 통해 어느 정도 민의를 수렴한 뒤 어떤 정당을 선택할 지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누구를 구속하라는게 민주주의냐"

안희정, 트위터서 이재명 발언 겨냥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일 "대통령으로서 어느 누구를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만이 정의의 역사를 만든다"라며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말하고 민주주의 시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 부회장 구속으로 재벌 체제 해체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달에는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보내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잡아넣겠다거나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취지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면서 "법치가 아닌 인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지사는 이 시장이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의 우산으로 제가 들어가야 한다"며 "결국 다 합쳐서 공동체 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들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대의와 명분이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치"라고 강조한 뒤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라고 일갈한 바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지옥이라도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판기념회…"사드 배치 절차 미뤄야…한일군사협정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느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참 슬픈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라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

미국은 오랜 친구니 도움도 받고 의논도 하고 전략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와 관련, 문 전 대표는 이날 출판간담회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니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음 정부로 절차를 미뤄야 타당하다"며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무조건 반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연장해야 하니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과 관련,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고, 점차 단축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까지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승민 "제3지대 국민 공감 못얻어"

광주서 언론 초청 토론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7일 "개헌을 연결고리로 하거나 친박·친문만 아니면 모두 모이자는 것은 원칙 없이 대선만 바라보는 연대이며 국민이 동감 못한다"고 제3지대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야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제3지대론과 빅텐트론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제3지대론은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제3지대와 친박·친문만 아니면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제3지대 두 가지인데 둘 다 원칙 없는 연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박만 아니면 다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편협해지겠느냐, 친박·비박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다"며 "야당도 친문·비문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닐 것이므로 국민을 위해 뭘 할 것인지 고민하는 원칙 있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의 대통령제 존속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새누리당을 마냥 보수라고 말한다면 보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서 민주공화국의 법치를 지키는 보수의 길을 가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그대해서는 "문 전 대표처럼 말 오락가락하는 분하고 끝장토론 하고 싶다"고 말했고 "반 전 총장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바른 보수에 동의하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면 늘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새 당명 공모

새누리당이 17일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 2012년 2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지 5년 만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이전에 국민을 상대로 당명 공모를 시작하고, 다음달 초 당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 당직자는 "당명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설 전에 공모해 설 이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모작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수적통'과 '미래지향적 개혁', '책임 있는 정당'의 의미를 포괄하는 당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붉은색인 당색과 로고도 함께 변경하는 대대적인 PI(Party Identity)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타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첨단 사무실 임대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010-7384-7800

상가 매매 전문
① 수완지구 3층 건물 어룡신협 앞
토 97평 건 145평 / 1층 (골프매장) 2층~3층(상가)
▶매가 16억 8천 (융 5억) 보 1억 월 700만
② 노대지구 (3층) 대단위 아파트 (코너자리)
토 251평 건 431평 1층 (식당/미용실) 2층 (식당/상가)
3층 (오피스텔 – 13개) (보1억6천 월 1천300만) ▶매가 27억
③ 월산동 (3층)상가 매매 (농성역 / 힐스테이트 5분)
토 132평 건 404평 1층 (은행) 2층~3층(상가)
4층~5층(독서실) 6층(주택) ▶ 매가 22억
④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천변로 전망 최고) (올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45평 보 1억 월 60만 ▶ 매가 1억4천만 (융5천)
⑤ 상무지구 오피상가 매매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9평) 보 500만 월 40만 (융 2천4백만)
▶ 매매 6천9백만
⑥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토 151평 건 423평 광주에서 40분 / 전원주택 최고 위치
▶ 매가 8천만
⑦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월세 45만 (융 1천 6백만)
▶ 매가 8천 500만 보증금 500만
⑧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 (11평) 운천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융 1천)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⑨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매가 3천 5백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2억4천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복합 상가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58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십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첨단지구 식당임대
◈ 한우식당 장어집 강력추천 !!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첨단 메가박스
첨단 산업단지 1분
삼성전자 정문 앞
커피숍 임대 전대 정문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 후문 코너자리
* 평수 – 15평
◈ 올리모델링 즉시입주가능
★ 보 2천 월 60만
☏ 010-7384-7800
010-6670-9800

평택 투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SAMSUNG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브레인시티/평택항 개항/미군부대 이전
☆ 평택 매주 출발 ☆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로 모십니다.
평택시 전원주택지
송탄역 5분!! 송탄사거리 1분 !!!
◐ 평수 1,610평
총 7필지분할
(토목공사 완료)
◐ 최고 입지 조건
(개발시 순수익 5억!!)
※1필지 200평 →
1억 투자시 가능
☏062-511-7800
010-6832-9700